

# 불교문화 불교 넘어 전통문화로 재평가

## 2012 학술·문화재 결산

2012년은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또 다양한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근대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고승들의 열반 및 탄신 100주기를 맞은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이 진행된 한해이기도 했다. 다사 다난했던 올 한해 불교 학술연구와 문화재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결산해본다.

### 근스님 탄신·열반 100주년 선양 활발

올해는 유독 탄신·열반 100주년을 맞은 선승(禪僧)들이 많았다.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경허(鏡虛·1849~1912) 스님과 성철(性徹·1912~1993) 스님, 서옹(西翁·1912~2003)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이밖에 조선훈교 초대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石顛 朴漢永·1870~1948), 다산일미 사상을 창시한 경봉 스님, 독립운동과 대가사상운동을 펼친 용성 스님, 태고종 대강백 윤기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의 초석을 다진 성철 스님의 경우 생전 설립한 백련불교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추모사업이 이뤄졌다.

2011년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를 주제로 네 차례 학술포럼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성철 스님 사상의 본질인 돈오돈수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11월 29일에는 동국대에서 세계적인 남부불교 연구자 피터 스킴링 등이 참여하는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주제 국제학술포럼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월과 6월에는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이 열려 유품과 유필, 사진 등이 일반에 공개됐다. 1월부터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제개발원 주관으로 성철 스님의 행적지를 탐방하는 순례단이 운영되기도 했다. 또 친필 불필 스님이 쓴 <영원에서 영원으로>를 비롯한 각종 책도 발간됐다.

조계종 5대 종정과 전남 장성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의 경우 백양사의 여러 문제로 인해 올해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선양사업이 전개됐다.

서옹 스님은 생전 수행기품을 새로이 하는 '참사람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백양사는 11월 23일 1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결사법회를 열고 '참사람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 내에는 연구소가 설립됐으며 2013년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11월 15~31일에는 기념 전시회 '참사람의 향기'도 개최됐다.

이와 함께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법명 정호' 스님을 선양하는 '석전 박한영 축전'도 10월 8일 중앙대학인 동국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석전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징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로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근대불교사에 기여한 바가 컸음에도 불교계에서의 선양사업은 전무했다.

축전은 동국대 중앙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 강연회·시문학 연구 학술대회 등으로 개최됐다. 또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유품 전시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산일미 사상으로 선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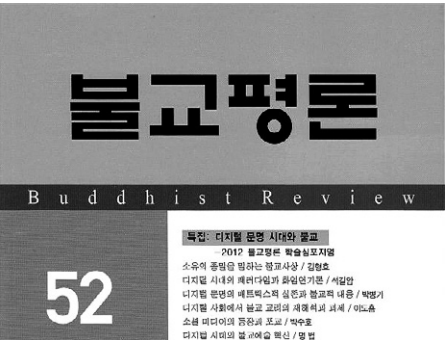
수행 법회와 대규모 다례제가 진행됐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여러 <경허집>을 비교, 통합해 정본 <경허집>을 준비 중에 있다.

### 경허 연구 비판 필화사건...<불교평론> 폐간과 속간

고승들에 대한 선양 사업은 고승 행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허 스님의 행적을 비판한 논문이 필화사건으로 번진 것.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다룬 계간지



2012년 한해는 다사다난했지만 불교발전의 학계 노력이 결집된 한해였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열반 100주기를 맞은 경허 스님(영상), 경허 스님에 대한 학문적 비판으로 폐간사태를 겪은 <불교평론>, 내장사 대웅전 화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장면



###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사찰방재예측시스템 도입 불교문화재 국민관심 고조

널리 펼치고 조계종 선종을 크게 진작한 경봉 스님의 탄생 120주년 및 열반 30주년 행사가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는 4월과 7월 극락선사 삼소 대화를 개최하는 한편 추모다례제와 학술대회, 유품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경봉 스님의 생전 주석처인 극락암 삼소굴에서 펼쳐진 삼소대화에서는 고려시대 전통차 공양 문화가 선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근대 한국 선(禪)을 증흥한 이로 평가받는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경허 스님의 학술적 재평가로 인해 올 한해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3월 조계사에서 선서화전이 개최된 이후 6월 수덕사와 전장암 등에서는 국제 선

<불교평론>가 폐간된 사태는 건전한 학문 연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10월 진행 예정이던 학술세미나에는 당초 발제자들 일부가 발표를 거부하기도 하기도 했다. 특히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주축으로 교수, 강사 등 220여명은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평론 폐간 사태는 단순히 일개 잡지의 발행 중단이라는 문제에 국한된 성질이 아니라 정당한 불교적 문제제기를 산중의 종교적 차원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만해사상실천연합회 12월 10일 폐간방침을 최종 철회하고 2013년 봄호부터 속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고승들의 문중 사찰 영향력이 연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최초 사례란 점에서 향후 건전한 비판문화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외에 수많은 학술세미나가 진행됐지만 학문성격에 맞지 않는 학자들의 발표와 저조한 연구실적 등이 학계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받았다.

이따른 화재...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본격 도입

10월 31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전소사건은 불교계에 목조건물에 대한 방재대책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화재로 근대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던 대웅전은 물론 편액, 석가여래좌상, 영산회상도, 나한도, 신중도가 모두 불타버렸다. 화재 분석한 결과 전기난로 주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방염처리로 화재위기에 벗어난 경우였다. 10월 5일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연소진됐다.

화재로 인한 문화재 및 사찰 피해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2010년까지 발생한 사찰화재는 총 629건으로 한해 평균 48.4건에 이르렀으며 한해 평균 피해액만도 7억 7375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화재 원인은 전기 40.4%(254건)로 단연 많았으며, 방화도 5.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2012년부터 10년간 938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에 시설하고 있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감지하고 검출해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감지 등을 활용해 미리 예측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사찰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불교문화재 대한 국민관심 고조

올해는 신라시대 연등축제를 근원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서울의 도심에 행형색색 연등 물결로 물들여 왔던 '연등회 연등축제'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해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는 2010년 영산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연등회 지정은 불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수록재와 판관회 등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문화재청도 3월 30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교문화재를 전통문화차원에서 보존, 활용 할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60% 이상이지만 무형문화재의 경우 불교문화재는 영산재와 연등회뿐인 상황이다. 불교미술과 불교공예 등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비롯한 지원은 향후 지속 되어 할 불교계 과제이기도 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일본서 한국 고대 불상 2점 발견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백제시대 청동 반가사유상과 통일신라 말기 철불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불교미술사 전문가인 엄기표 단국대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하는 '일본 속의 고대 한·일 불교문화 조사연구'를 위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고정룡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박사 등과 함께 오사카·교토·나라 등지의 사찰과 박물관을 답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제 반가사유상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사가(滋賀)현의 히에이산(比叡山) 엔라쿠사(延曆寺)를 조사하던 도중, 이곳 국보전에서 발견됐다. 백제 반가사유상은 일본에서는 몇 번에 걸쳐 출품 전시가 이뤄졌지만 한국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이후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반가사유상은 웃음을 띠출 무리로 반복해서 넣은 원통형 대좌 위에 오른발을 왼발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있는 보살의 모습을 표현했다.

전체 높이 12.8cm, 대좌는 높이 4.6cm, 너비 4.5~4.9cm의 규모다.

엄기표 교수는 "조각 기법이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그 형식으로 보아 백제가 만들어 일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한 나라현 가쓰라기시(葛城市) 소재 다이마사(當麻寺) 부속 박물관인 보물관에서 결가부좌를 한 철불 한 점도 발견했다.

불상은 오른쪽 발목 위로 두 가닥의 두



백제반가사유상

통한 웃음을 걸쳤으며, 무릎에는 굽은 음각선으로 된 웃주름이 있다. 전체 높이 81cm, 머리 높이 30.5cm 규모로 표면에 녹이 많고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엄 교수는 "이런 웃주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만들어진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한 기법"이라며 "미소를 머금은 원만한 상호의 조각 기법과 안정된 자세 등으로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만한 상호의 조각 기법, 비례가 어울리고 안정된 자세, 웃주름이 신체와 잘 어울리도록 한 점, 무릎 앞쪽으로 형성된 부채살 모양의 법의 자락, 나발의 정연한 표현 등의 양식으로 미뤄볼 때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단은 "반가사유상의 경우 많지 않은 백제반가사유상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며 "철불 또한 일본에 전래된 철불 양식이란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국가고객만족도 사립대학부문 4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사립대 부문에서 동국대가 4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것으로 14개 사립대 중 유일하게 4년간 점수와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동국대는 전체고객만족도가 70점으로 전년 대비 68점에 비해 2점 올랐다. 이는 2012년 산업평균인 67점보다도 높은 수치다. 전년 대비 향상율도 2.9%로, 2011년

4.6%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대학부문에서 처음 참가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종합순위가 12위→8위→7위→4위로 매년 꾸준히 오른 유일한 대학이 됐다. 동국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문제점 개선으로 학교 발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와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회장 박성식)는 12월 29일 오후 2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227호 강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 2차 융합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유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방법론적 접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서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조교수의 '연기적 관점에서 본 사상 의학'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치유·치병 개념에 있어서 불교와 한의학의 비교' △이지량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불교의 기질과 사상의학의 체질에 따른 심리적 요소의 차이' △배효상 동국대 일산병원 사상체질과 교수의 '명상이 사상체질에 따라 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불안, 우울, 분노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02)6713-5139 노덕현 기자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시,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다. 강 주** : 석범순 스님, 월봉 스님
-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충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승가회충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